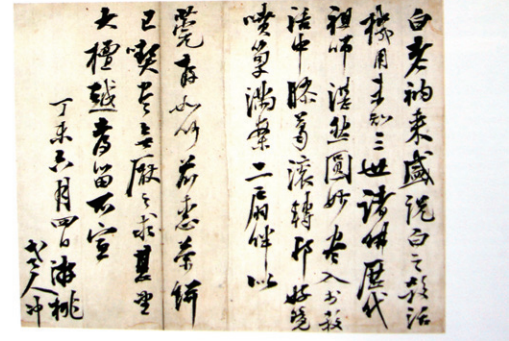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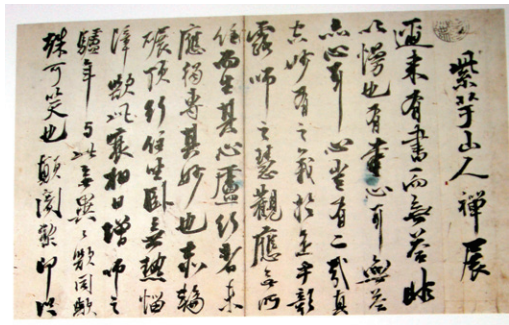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두자루 부채 짝지어 보내니...

무더운 여름,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두 자루의 부채는 백선(白扇)이었는데, 아니면 담박한 글귀를 적은 부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사의 말처럼 “붉은 해가 이마 위를 맴돌길하는” 여름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기원한 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그는 초의가 보낸 차도 이미 떨어져 슬하고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차의 공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이는 그가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초의자를 곁들(乞若)하면서 스스로 “실증하지 않는 요구”였음을 고백한 이유이다. 따라서 늘 초의에게 “큰 시주”를 기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26신과 <영해대운집>, <나가목연집>에 모두 수록되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목연집>의 편지에 년대를 알 수 있는 간기가 있다. 이로 인해 이 편지가 1847년 6월 4일 쓴 것이 확인된다. 당시 추사의 불교관이 불이선(不二禪)이었음을 드러낸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기가 있어 년대 알 수 있는 <나가목연집>

노인(邇來有書而無答 非以慢也 有書心耳 無答亦心耳 心豈有二哉 眞空妙有之義於是乎彰露 師之慧觀 應無所住而生其心 虛行者未應獨專其妙也 赤輪碾頂 行住坐臥 無熱惱障歟 此衰相日增 師之驢年 與此無異 異歟同歟 殊可笑也 願開梨 即從白老納來 盛說白之殺活機用 未知 三世諸佛 歷代祖師 湛然圓妙 盡入於殺活中 膠葛滾轉耶 好覺噴箭滿案 二扇伴似 堯存如何 前惠茶餅已喫盡 無厭之求 其望大懼 越 都留不宣 丁未 六月四日 游桃老人)

추사는 초의가 보낸 편지에 답신을 보내지 못한 듯하다. 이는 그의 마음이 태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답신을 보내는 것도 마음이고, 답을 보내지 않은 것도 마음일 따름이니 마음이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런 어치가 곧 “진공과 묘유의 뜻이 이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답신을 못한 추사의 변명치곤 그의 불교관을 아울러 드러낸 희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대의 지혜로운 마음(관점)은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난 것(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추사의 덕담이 장쾌하다. 이 구절은 원래 <금강경>의 일구로, 해능 또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이런 어치는 “노행자(혜능)도 그 묘법을 독차지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추사의 변명 원대 본심이 그러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초의 또한 이런 경지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박중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그동안 (그대가)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던 것은 태만해서가 아닙니다. 답신을 보내는 것도 마음이고, 답을 보내지 않은 것도 마음일 따름이니 마음이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진공과 묘유의 뜻이 이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대의 지혜로운 마음(관점)은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난다. 노행자(혜능)도 그 묘법을 독차지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붉은 해가 이마 위를 맴돌길하는 데 일상생활에서 뜨거운 번뇌의 장애는 없으신지요. 나는 쇠한 풀이 날로 더해지는데 그대의 노년(당나귀 해: 간지에 없는 해)도 나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리니 어떻습니까. 자못 웃을 만한 일입니다. 미혹된 중이 백과노담으로부터 와서 백과외의 살

활기움을 장황히 말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삼세제 불과 역대 조사의 담연한 원묘의 세계도 거의 실활 속에 들어가서는 이리저리 엉겨 붙는다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두 자루의 부채를 짝지어 보내니 웃으며 받아들이어 떨어지오. 전번에 보내준 차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실증하지 않는 요구라서 큰 시주를 바랍니다. 모두 뒤로 미루고, 이만 줄입니다. 1847년 6월 4일 유도

“마음이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답신못한 추사 변명 ‘불이선’ 드러내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왕청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승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가는 날까지 원고 쓰겠습니다”

작가 윤청광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인사클럽 회장)

원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바가지에 담긴 물을 아주 맛있게 마셨다. 물을 마신 후, 길게 한숨을 토하고 있는데, 의상 스님이 잠결에 물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원호 스님은 의상 스님을 깨워서 그 물바자지를 건네주었다. “이 사람 자네도 목이 타는 모양이로구먼. 자, 자, 물 먹어 있으니 어서 마시도록하게나.”

‘고승열전’
1990년 9월 1일 불교방송(BBS)에서 첫 전파를 탄 드라마 ‘고승열전’의 반응과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지나간 고승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모였다. 아 도화상, 겸의 스님, 원광법사, 자장율사... 방송은 25권의 책으로 이어진다.

“그 때 ‘고승열전’의 인기는 대단했죠. 불자라면 모두 그 시간에 라디오를 켜었으니까요. 방송을 듣는 동안엔 화장실에 갈 때도 라디오를 들고 갔다는 불자도 있었어요.”

1997년까지 장장 7년 동안 불교 방송사에 길이 남을 ‘고승열전’을 집필했던 작가 윤청광. 빛물에 젖은 우산을 털어내며 들어선 그는 기자 책상 위에 놓인 <고승열전> 5권 ‘원효대사’ 편을 보자 마치 다른 시간은 필요 없다는 듯 그 시절로 돌아갔다. “정말 신나는 시절이었죠. 고승들의 숨겨진 이야기 한 줄을 듣기 위해 점점 산중도 반갑기만 했고, 폭설에 갇힌 산길도 망설일 수가 없었죠. 좋은 대본을 쓰기 위해 전국의 크고 작은 절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집필을 남긴 작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 시절을 이야기했다.

작가의 탄생
작가 윤청광. 그의 작가로서의 삶은 1965년 문화방송에 입사하면서 시작된다. 보도국 작가로 입사한 그는 당시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오발탄’과 문화방송 최정상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된 ‘전설 따라 삼천리’의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날 작가 윤청광의 이름 뒤에 대표적으로 따라 붙는 작품은 ‘오발탄’이지만 ‘전설 따라 삼천리’는 불자 윤청광으로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발굴해 선인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우고 미용양속과 경로사상, 충효사상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1965년 5월 1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여러 명의 작가들이 집필을 맡았다.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불교와 관련된 전설들만을 소재로 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산신령이 나타나는 소리, 마귀가 우는 소리, 조롱박이 황소로 변하는 소리 등 많은 효과음들이 등장했는데, 그의 작품에선 예불소리, 독경소리, 목탁소리, 산사의 풍경소리, 노승의 법문 소리가 들려왔다.

불교를 만나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바닷가 절벽 위엔 절이 하나 있었다. 축성암.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축성암에 다녔다. 그는 절에 다니는 게 좋았다. “그냥 좋았죠. 그 때 그랬어요.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절에 가면 떡이며 과일이며 먹을 수 있었죠. 학교 소풍도 축성암으로 갔었죠.”

작가 윤청광이 쓴 ‘전설 따라 삼천리’ 속에 예불소리, 목탁소리, 스님의 법문 소리가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마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다닌 그 시절이 작가 윤청광의 정신적인 배고고 살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불교’와 만나게 된다. 당시 동국대 불교대 학생회장이었던 박완일 회장이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강연 했던 ‘불교강연’을 듣게 된다.

“그 때 처음 불교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죠. 맛을 보게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늘 문예반 활동을 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동국대 영문학과에 입학한다.

“영문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성경>이 필수인 것을 알게 됐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다보니 고등학교 때 불교 강연에서 들었던 ‘불교’가 떠올랐어요. 불교 속에 있던 것들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때 불교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어렵듯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 때부터 불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대 학보사 1기 기자로 활동하게 되는 그는 학교 신문을 만들면서 불교에 대해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그는 문화방송에 입사하게 된다.

시련과 출판인으로서의 새로운 삶
문화방송에서 ‘오발탄’과 ‘전설 따라 삼천리’의 작가로 맹활약 하던 그에게 시련이 닥친다. 1980년, 당시 ‘대한민국’이 고단했던 시절이다.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언론통폐합’, 1980년 11월 12일 신군부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강제로 언론매체를 폐지 또는 통합했다. 그 과정에서 윤청광의 ‘오발탄’은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그도 문화방송을 떠나게 된다. 작가로서의 삶을 접어야만 했던 그는 출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1980년, 그는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불교방송사에 남을 ‘고승열전’ 집필 대표작 ‘오발탄’, ‘전설따라 삼천리’ 동국대 학보사 1기 기자 법정 스님 <영혼의 모음> 편집 인연 염주 팔것 아니라 ‘잘 사람’ 만들어야 ‘인사클럽’ 초대회장 취임, 남은 인생 회향

있는 동국출판사를 설립한다. 그는 이미 출판의 경험이 있었다. 1973년 법정 스님의 첫 번째 책 <영혼의 모음>의 편집장을 맡았었다. 훗날 법정 스님이 시작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본부장을 맡게 되는데, 그의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 불교 출판 시장은 기독교의 20% 밖에 안 됩니다.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책 보는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출판 시장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교’가 걱정스러워지는 것이죠. 염주를 팔 것이 아니라 염주를 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접고 출판인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의 그림자는 늘 불교 안에 있었다. 그 동안 동국출판사는 불서를 비롯해 일반 경제서적, 심리서적 등 120여종의 책을 출간했다.

다시, 작가 윤청광 출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였지만 ‘윤청광’은 작가였다. 그는 문화방송을 그만 두었던 1980년부터 박완일 회장이 발행인으로 있었던 월간지 <법륜>에 연재를 시작한다. 겉으로는 작가로서의 삶을 접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작가’였다. 연재는 한국 불교 고승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때 <법륜>에 10년 동안 연재했던 고승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고승열전’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랬다.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고승열전’



불교방송사에 남을 ‘고승열전’은 25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사진은 1995년 출판기념회 모습



윤청광은 ... 1942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문화방송에서 '오발탄', '신문고', '전설 따라 삼천리',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집필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과 부회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법정 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본부장을 지냈다. 현재 동국출판사 대표, 출판연구소 이사장,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인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BBS불교방송을 통해 '고승열전'을 집필했고,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회색고무신> 등의 저서가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그때 수집했던 기록들이 고승열전의 기초가 됐죠. 그 기록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고승열전'이 탄생한 거죠.”

작가로서의 삶을 접고 출판인으로 삶을 시작했던 그는 1990년 '고승열전'으로 다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쉬운 불교’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알아먹는 불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 것이 '고승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속에 '불교'가 가득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자신도 모르게 포교에 대한 열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쉬운 불교'를 전할까 궁리했다. 주먹 하나와 '악!' 소리 하나로 끝나버리는 고승들의 선문답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작가 윤청광은 고민한다. 작가 윤청광의 고민과 회율은 거기에 있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알릴까 고민했고, 그 고민의 끝이 그의 회열이고 보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밤을 새운 그의 고민이 라디오의 전파를 뒀던 것이다.

효과 : 풍경소리 땡그렁 울린다.
스승 : “저 소리를 듣느냐?”
제자 :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효과 : 다시 풍경소리 땡그렁 울린다.
스승 : “저 소리도 못 듣느냐?”
제자 : “풍경소리 말씀이십니까?”
스승 : “그래, 저 소리가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효과 : 정적
제자 : “없습니다.”
효과 : 다시 풍경소리 땡그렁 울린다.
스승 : 저 소리는 무엇이더냐?
제자 : “있습니다.”
스승 : “허어! 저 풍경소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불교방송에서 공헌한 윤청광은 2004년 보리방송문화상을 수상했다.

고승열전은 말(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이었다. 그가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하면서 세운 원력은 작품을 통해 쉬운 불교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작가 윤청광이 홀로 일으킨 윤청광만의 '불교운동'이었던 것이었다.

회향

작가로서의 삶과 출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는 불자로서 또 다른 원력을 세웠다.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낸 그는 '불교 언론인'이기도 하다. 불교 언론인으로서 그가 세운 원력은 불교 언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22일, 동산대학교 2층 법당에서는 불교 전·현직 중진 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이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됐다. 그는 불교 언론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의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불교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의 진정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한국불교의 지표상정하는 사회적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인사클럽'의 초대 회장을 맡은 그는 취임 인사말에서 "인사클럽이 중대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정론직필을 펴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며 "인사클럽이 후배 기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등불이며 후원자가 돼 오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한국불교 1600년을 펼 수 있게 밑거름이 되자."고 말했다.

“불교가 들어온 지 1600년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불자들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새로운 '1600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처님이 남기고 간 불교의 원형을 우리나라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언론이 그 새로운 1600년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교 언론이 좀 더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작가'라고 마무리하며 그는 말했다. “가는 날까지 원고를 쓸 겁니다. 새로운 한국불교의 1600년을 위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박재원 기자 wanihallo@hyunbul.com

전법일기

신도상담

사찰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신도상담”이다. 10여 년 쯤 소임을 살고 있지만 한 순간도 가벼이 할 수 없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신도들은 위로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또는 명쾌한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스님을 찾는다. 상담을 원하는 신도들 중에 기쁘고 신명나는 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막히고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묘책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이야기는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해결이다.

그 중에서 부부간의 이혼상담은 난제 중의 난제다. 언제인가의 일이다. 다져내며 부부가 찾아왔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내 앞에 앉은 부부는 각자 등을 돌리고 출발점을 알 수 없는 갈등은 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참을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었다. 부인은 뜬금없이 공함을 보달라고 했다. 그럴잖아도 당혹스런 나에게 이 무슨 황당함이란 말인가.

말이 없는 나에게 그 보살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주팔자를 보달라고 재촉했다. 난감하기 그지없다. 슬하에 자녀들이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만큼 살아놓고 이제 와서 사주팔자 타령이리나...

스님과 상담을 신청해놓고 사주팔자와 신수 보달라 할 때도 난감하다. 오래 담연하게 스님들은 역학정도는 우습게 할 줄 아는 것으로 안다. 그럴 때 마다 곤혹스럽다. 나는 역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배울 마음이 없었다. 배우면 써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끈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

부처님 말씀으로 내일을 열어가자



그림 · 박구원

이다. 그렇다고 잠기가 있어 보면 적적 알아맞히는 능력(?)도 물론 없다. 그렇다보니 난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절에 와서 이리도 매달릴까라는 생각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정중히 '저는 그런거 못합니다'라고 하니 스님은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웃는 얼굴로 핀잔을 주는 듯한 완곡한 충고를 하고 나가버린다. 아마도 잘 봐주는 다른 절로 갈 기세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겐 주지자격미달인 셈이다.

어떤 분은 십년 넘게 자녀의 결혼상대자의 사주를 들고 찾아오는 이도 있다. 30대 초반부터 시작된 좋은 짝 찾기 노력은 올해도 여지없이 두 번의 상담을 거쳤다. 사주를 적어온 메모지를 내밀

며 어떤 것 같으냐는 질문에 난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이제 자녀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결혼을 못합니다. 사주궁합보다 서로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신신당부해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궁합이 맞아야한다며 묻기 시작한 것이 벌써 자녀의 나이가 내일모레면 오십이다.

요즘도 가끔 이런 분들을 찾아온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어떤 것 같으냐 묻는다. 마치 철학관이 나 무숙인에게 묻듯이 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절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는 태도를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안타깝다.

절은 그런 것 보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지혜말씀과 자비실천으로 모두 담아 낼 수 있고 이룩할 수 있는 바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이해를 넓혀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쉽게 사주팔자 신수를 통해 내일의 나를 알고 싶은 것이다. 한편으로 방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해주곤 한다. 그렇다보니 스님들이 마치 내일을 알고 있는神通한 도인처럼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

살다가 어렵고 막힌 일을 풀기 위해서 또는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스님을 찾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어야 한다. 우리들이 궁금한 내일은 사주팔자나 신점이 아닌 부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고 수행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토 불교사 주지)

Advertisement for Chanduk Buddhism products including LED lanterns and incense burners. Features images of various products and a table comparing LED and standard incense burners.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림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Table comparing LED and standard incense burners with columns for Type, Power, Efficiency, Price, and Lifetime.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